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375

2014년 2월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논문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의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아 람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의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port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Tenacity and Athletic Performance among Women Taekwondo Sparring Players

2014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아 람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의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 정 재 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아 람

김아람의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윤오남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계 행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재 환 인

2013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5
3. 연구모형 및 가설 ····· 6
   1) 연구모형 ····· 6
   2) 연구가설 ····· 7
4. 연구의 제한점 ····· 9
5. 용어의 정의 ····· 9
   1)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 10
   2) 승부근성 ····· 10
   3) 경기력 ····· 10

Ⅱ. 이론적 배경 ····· 11

1.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 11
   1) 성취목표성향의 정의 ····· 11
   2)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의 관련요인 ····· 12
   3)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의 운동수행의 관계 ····· 15
   4)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의 선행연구 ····· 16
2. 승부근성 ····· 18
   1) 승부근성의 정의 ····· 18
   2) 승부근성의 구성요인 ····· 19
   3) 승부근성의 선행연구 ····· 22
3. 경기력 ····· 24

Ⅲ. 연구방법 ····· 26
1. 연구대상 ····· 26
2. 조사도구 ····· 27
1)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 28
2) 승부근성 ····· 29
3) 경기력 ····· 29
4) 사회인구학적 특성 ····· 29
3.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 30
1)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 30
2) 승부근성 ····· 32
3) 경기력 ····· 33
4) 신뢰도 분석의 결과 ····· 34
4. 자료처리방법 ····· 35

Ⅳ. 결과 및 논의 ····· 36
1. 결 과 ····· 36
1) 상관관계 분석 결과 ····· 36
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경기력의 차이 ····· 37
3)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 ····· 42
4)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 48
2. 논 의 ····· 52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경기력에 대한 분석 결과 ····· 52
2)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 ····· 54
3)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 55

Ⅴ. 결론 및 제언 ····· 58
1. 결 론 ····· 58
2. 제 언 ····· 59

참고문헌 ····· 61

부　　록 ····· 70

표 목 차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7
표 2. 설문지의 구성내용 및 문항수 ····· 28
표 3. 성취목표성향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31
표 4. 승부근성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32
표 5. 경기력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33
표 6.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 35
표 7. 상관분석 결과 ····· 36
표 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의 차이 ····· 38
표 9.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승부근성의 차이 ····· 40
표 10.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기력의 차이 ····· 41
표 11.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투혼에 미치는 영향 ····· 43
표 12.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욕에 미치는 영향 ····· 45
표 13.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 47
표 14.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 49
표 15. 승부근성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 51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 7

그림 2.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의 공분산 설정모형 ····· 31

그림 3. 승부근성의 공분산 설정모형 ····· 33

그림 4. 경기력의 단일요인모형 ····· 34

Abstract

The Effects of Sport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Tenacity and Athletic Performance among Women Taekwondo Sparring Players

Kim A-ram
Advisor Prof. Jeong Jae-hwan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tenacity and athletic performance among women Taekwondo sparring players. For that purpose, the investigator set the women Taekwondo sparring players registered at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under the category of competitor group as the population and sampled the subjects through the 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

Total 500 female college Taekwondo players were sampled among those who competed in the 40th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 for Individual College Players, the 43rd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 for Groups for the Presidential Pennant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the 48th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 for Groups for the Presidential Pennant, and the 36th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 of Korean College Federation. After excluding the data of 63 players including dual answers, insincere

answers, or missing data, the data of total 437 players were analyzed as final valid sample data. The study employed four specific analysis method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to analyze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analyze validity and reliability, simple correlation analysis to examine relational significance among the actual variables, and one-way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illustrate influences among the variables.

First, the analysis results of differences i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cording to the player's career show some differences in task and ego goal orientation. The analysis results of differences i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cording to the career of winning a prize indicate some statistical differences in task and ego goal orientation.

Second, the analysis results of differences in tenacity according to the team reveal some differences in self-confidence. The analysis results of differences in tenacity according to the player's career show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desire for victory, fighting spirit, and self-confidence, subfactors of tenacity. The analysis results of differences in tenacity according to the career of winning a prize indicate some differences in desire for victory, fighting spirit, and self-confidence.

Third, the analysis results of differences in athletic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player's career and the career of winning a prize led to some differences in athletic performance.

Fourth,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turned out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fighting spirit, desire for victory, and self-confidence, subfactors of tenacity.

Fifth, task and ego goal orientation, subfactor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athletic performance.

Finally, desire for victory and self-confidence, subfactors of tenacity,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on athletic performanc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태권도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함께 숨을 쉬며 독특한 형태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전통무예로서, 인간교육을 위한 교육적 개념과 경기적인 개념의 복합성을 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있다. 즉 태권도는 동양의 전통문화와 스포츠라는 서양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전통무예로서 점차적으로 확고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임관인, 2005; 장 권, 2010).

태권도는 1962년 '대한 태수도 협회'가 '대한체육회'에 가맹 이후 1963년 2월 23일 '대한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정식 경기단체로 가입되면서 태권도의 무도스포츠로서 기틀을 마련하게되었다(강원식, 이경명, 1999; 장 권, 2010 재인용). 태권도 경기는 1962년 10월 24일 제4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면서 1963년 10월 4월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체육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1963년부터 매년 5-6회 이상의 태권도 경기가 개최되면서 1966년 10월 28일 제1회 대통령기쟁탈 전국태권도대회가 개최되는 등 태권도의 경기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신동선, 2010).

여성이 태권도 수련에 관한 직접적인 거론은 강원식, 이경명(1999)은 '일반 여성들에게 태권도가 보급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라고 밝히고 있으며, 김영인(2002)은 '한국여성태권도 발전과정에 관한 기초 자료조사'에 관한 논문에서 '한국 여성이 태권도 수련을 본격적으로 수련을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 이지만 여성 태권도 경기에 출전한 기록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들보다 약 10년 이후 부터 시작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신동선 2010, 재인용).

이후, 1970년 10월 제1회 여자부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가 한성여고 체육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태권도 경기인으로 활약한 남궁명석 사범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 대회는 1974년 국내 여자선수만이 아닌 외국인 남녀선수까지 포함하는 '주한 외국인 및 여자부 개인선수권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1979년 제1회 한국 여성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데 여성 태권도 보급에 중추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71년 태권도의 가치와 우월성을 인정받고 심신도야, 인격도야, 국민체력 향상의 목적이 인정되어 우리나라의 국기로 지정되면서, 1973년에는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를 서울에서 시작하였으며, 1973년 5월 28일 세계태권도연맹(WTF : World Taekwondo Federation)을 창설하고 1980년 7월 17일 국제올림픽(IOC: Internatioal Olympic Committee)에서 공식경기로 승인되어, 1982년 한국, 대만 친선경기에 처음으로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을 국제시합에 파견하게 되었다. 또한, 1987년도 스페인에서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된 이후 1988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여성 태권도 경기를 치렀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등 3차례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시작으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5회 연속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여성부 태권도 경기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무도 스포츠로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채택 이후,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8년 베이징올림픽 등에서 태권도 경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단점이 나타났으며, 더욱이 세계의 각 국가에서는 태권도를 국가정책종목으로 지정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 많은 연구와 투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아끼지 않고 있으며(정현도, 2005), 한국 국가대표 선수출신을 포함한 유능한 코칭 스태프의 도입제도로 인하여 한국 태권도 선수의 동등한 기술능력과 훈련방법을 습득함으로서, 한

국 선수를 능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황영갑, 2007). 이처럼 대한민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가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경기력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및 올림픽 대회에서의 한국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정국현, 2003).

최근,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 최상의 운동수행과 심리적 변인과의 인과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김성은, 2005), 특히, 운동선수의 능력을 겨루는 경쟁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 지도자,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어 운동선수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탁월성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우수선수와 비우수 선수간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임낙철, 2009; 이동숙, 2010, 재인용). 이러한 경기력은 운동선수들의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종합적인 요인으로 선수들의 개인적 특성과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며, 우수한 경기력을 가지기 위해 체력과, 기술, 심리기술 및 전술운영능력 등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Norton & Olds, 2000; 조현철, 김종식 2011, 재인용). 따라서 스포츠 현장에서 최고수준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조절함으로서 선수자신의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것으로 심리적 변인의 중요성 부각시키고 있다.

국내 스포츠 심리 분야에서는 최상의 운동수행과 심리적 변인의 인과관계를 탐색하려는 연구는 1990년 후반을 기점으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나, 스포츠 경기종목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대표적인 연구(유 진, 1996; 김병현, 이한규, 엄한주, 1997; 김병준, 1998; 김원배 1999, 2001, 2002; 홍준희, 2001; 허정훈, 2002, 2004; 김원배, 윤영길, 2003; 윤영길, 2004; 김희종, 2007)로서 자연스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스포츠 종목의 특성과 운동선수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동향은 스포츠 현장에서 성공적인 경기수행을 예측하는 것과, 운동선수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극대화 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특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이며(김순영, 2010), 또한 우수한 경기력을 가진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고도의 기량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신체적 기술뿐만 아니라, 시합 전, 시합 중, 시합 후에 필요한 적절한 심리상태를 유지하여 성공적인 경기를 수행하는데 있다(박성진, 2007). 이처럼 스포츠 현장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은 운동선수 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내·외적인 요인, 즉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제반적인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서, 운동기능과 심리적 변인과 함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다(Carron, 1980). 다시 말해 운동선수의 체력과 기술, 심리기술 및 전술운영 능력 등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적인 요인이다(Norton & Olds, 2000; 조현철, 김종식, 2011).

특히,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 운동 선수의 성취목표성향 이론은 개인의 성취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취목표성향에서 성공과 실패는 객관적인 사건이 아닌 주관적인 인식으로 전제되며, 성공은 개인적으로 성격 혹은 단순한 목표 자체의 기능적 결과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개인의 목표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오정묵, 2008), 이러한 성취목표성향은 운동선수의 개인적 관점에서 성공, 실패는 개인의 성취효과의 해석에 근거한 심리적 요인으로 조명할 수 있다(Duda & Nicholls, 1989; 김성은, 2005, 재인용).

한편, 승부근성은 경기력 향상과 정신력을 대변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고통스런 상황을 투지와 인내력으로 극복하거나 승리해야겠다는 강한 목표의식, 성취 욕구에 의해 표출되는 것으로, 운동선수의 심리적인 강인함과 연관하여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소로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승부근성은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힘을 의미하며, 경기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김원배, 2001). 이러한 승부근성은 스포츠 경기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으로 강인한 승부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승리에 대한 강렬한 성취욕구인 승부욕, 투혼, 누구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등으로 개념화 될 수 있는 정신력을 의미한다(추수진, 2011). 따라서 승부근성은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불리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굽히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끝까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승리하겠다는 운동선수의 강인한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추수진, 2011 재인용).

국내의 스포츠 심리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로서, 국내 정상급 선수들의 승부근성은 승리에 대한 강렬한 욕구인 승부욕, 투혼, 자신감 등은 스포츠 현장의 지도자 및 운동선수들은 한국적인 강인한 승부근성이 국제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의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심리적 특성이며, 이러한 강인한 승부근성이 있었기에 스포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추수진, 2011; 김영미, 이화석, 한혜원, 2010; 전병관, 추수진, 2011)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태권도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태권도 선수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경기상황에 맞는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과 다양한 정보제공 하여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의 경기력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인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 및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규

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일반적 특성으로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의 학년, 운동경력, 입상경력에 따른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경기력에 관한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여성 태권도 선수의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것이다. 셋째, 여성 태권도 선수의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것이다. 넷째, 여성 태권도 선수의 승부근성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태권도 지도자의 효율적인 지도 및 여성 태권도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장에서는 배경변수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소속, 선수경력, 입상경력), 독립변수인 스포츠 성취목표성향(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 매개변수인 승부근성(투혼, 승부욕, 자신감), 종속변수인 경기력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모형을 정립하고 각 변수를 정의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스포츠에서 선수의 심리적 준비와 경기에서 발현되는 심리기술(psychological skill)은 현장에서 뛰는 선수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김용규, 김덕진, 2010). 따라서 스포츠 성취목표 성향과 경기력과의 관계(김주희, 문현희, 2009; 김창문, 배영훈, 한태준, 2005)를 검증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승부근성과 경기력의 관계 또는 하위요인 끼리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및 상호

작용 효과를 규명하고자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배경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성취목표성향(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 승부근성(투혼, 승부욕, 자신감)등은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경기력은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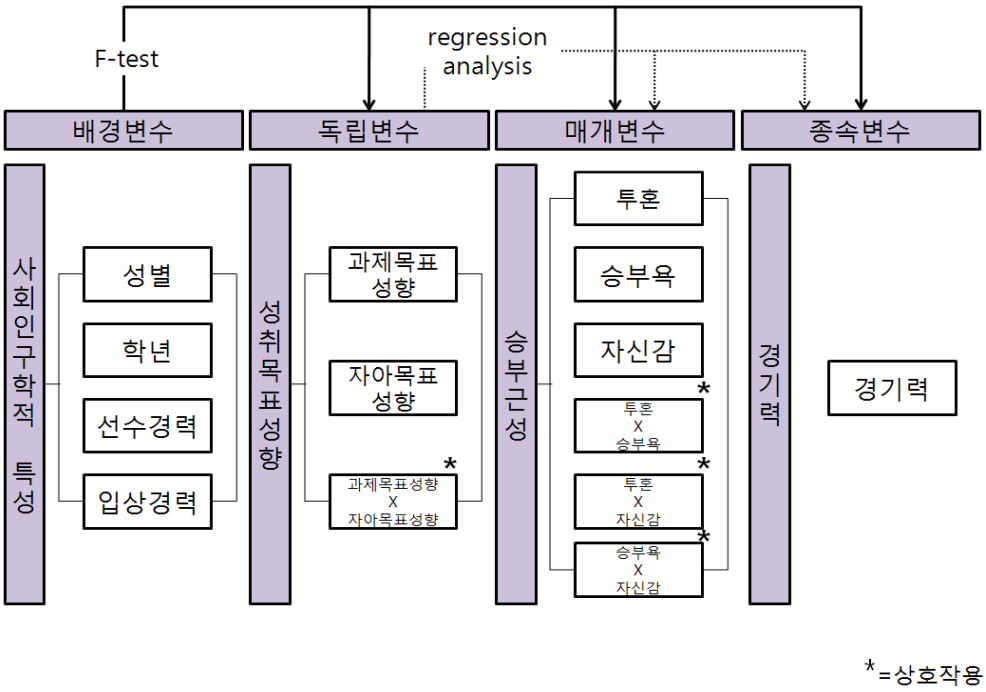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첫째,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및 경기력의 차이 둘째, 스포츠 성취목표 성향과 승부근성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셋째,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Ⅰ. 사회인구학적 특성(소속, 선수경력, 입상경력)에 따라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및 경기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Ⅰ-1. 사회인구학적 특성(소속, 선수경력, 입상경력)에 따라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Ⅰ-2. 사회인구학적 특성(소속, 선수경력, 입상경력)에 따라 승부근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Ⅰ-3. 사회인구학적 특성(소속, 선수경력, 입상경력)에 따라 경기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Ⅱ. 스포츠 성취목표성향(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은 승부근성(투혼, 승부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1. 스포츠 성취목표성향(과제목표성향·자아목표성향)은 투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2. 스포츠 성취목표성향(과제목표성향·자아목표성향)은 승부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3. 스포츠 성취목표성향(과제목표성향·자아목표성향)은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4.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의 상호작용항은 투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5.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의 상호작용항은 승부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6.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의 상호작용항은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Ⅲ. 스포츠 성취목표성향(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 승부근성,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Ⅲ-1.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은 승부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Ⅲ-2.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의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은 2013년 대한태권도협회에 선수로 등록한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에 대한 제한적 이해가 요구된다.

둘째, 이 연구는 여자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남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에게는 일반화 하는데 제한적 이해가 요구된다.

5.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에 포함한 개념들에 관한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이 연구에서 제시된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의 조작적 정의는 개인이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개념으로 성취상황에서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성공의 개념에 기초를 두고 지배적으로 채택하게 되며, 개인의 성취와 관련된 인지와 정서, 그리고 행동에서 기본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한국스포츠심리학회, 2005).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을 자아목표성향과 과제목표성향으로 구분하였다

2) 승부근성

승부근성이란 승리에 대한 강렬한 욕구인 승부욕, 투혼, 누구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등으로 개념화 될 수 있는 정신력을 의미한다. 신정택, 김성훈, 박윤식(2009)은 한국 선수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성향으로 한국선수들이 가진 정신력의 뿌리라고 정의하였으며,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투혼, 승부욕, 자신감으로 구성하였다.

3) 경기력

경기력은 선수 개개인이나 팀 전체가 경기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총제를 일컫는 것으로서, 체력, 기술 그리고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경기력은 운동선수들의 내적, 외적 요인 즉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물리적,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볼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1) 성취목표성향의 정의

일반적인 목표(goal)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행위의 목표(aim)또는 목적(object)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목표설정 연구에서 목표라는 용어는 과제 수행시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specific standard)으로, 제한된 시간내에 달성할 수 있는 준거로 사용되고 있다(Weinberg, 1992, 1996). 또한, 목표는 추구하는 목적이나 결과를 의미하며, 목표의 강도는 개인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느냐를 의미한다(Burton, 1993). Locke, Shaw, Sarri & Latham(1991)은 목표에는 내용(Conetent)과 강도(intensity)의 측면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목표의 내용은 스포츠 현장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목적이나 결과를 의미하며, 목표의 강도는 개인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느냐를 의미한다(Burton, 1993 ; 오정묵, 2008 ; 추수진, 2011 재인용). 따라서 목표의 주요기능은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지어 주는 것으로 목표가 수행에 영향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목표를 인식하는 것이 목표달성을 미치기 위해서는 수행에 참여한 수행자들이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다.

최근 동기영역의 연구자들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행위와 감정 및 정서의 차이를 규명하려는 것과 목표성향에서의 개인차의 차이를 밝히려고 노력하여 왔다(Ames, 1984; Maehr, 1984;
Maehr & Nicholls, 1980).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 동기 연구자들은 스포

츠와 운동에 기초를 두고 스포츠에서 개인의 목표성향에 관한 영향을 검증하기 시작하였다(Duda, 1989).

따라서 스포츠 상황에서 개인이 목표성향은 성공과 실패를 지각하는 정도나 개념의 차이를 반영하는 성취목표성향 이론가들(Maehr & Nicholls, 1980; Dweck, 1986; Elliott & Dweck, 1988; Nicholls, 1984)은 목표를 구체적인 시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 과제의 수행능력 수준 혹은 성취를 의미하며, 개인이 성취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동기에 기초를 둔 개인의 인지적 특성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Maehr & Nicholls(1980)의 연구에 기초를 두고 많은 연구들이 스포츠와 운동상황에서 목표성향과 행동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와 운동상황에서 다양한 목표성향이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성향에서 차이는 연령, 성, 및 문화와 같은 개인적, 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김찬주, 2006 재인용).

2)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의 관련요인

성취목표성향 이론에서 개인이 성취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취목표성향에서 성공과 실패는 객관적인 사건이 아닌 주관적인 인식으로 전제되며, 성공은 개인적으로 성격 혹은 단순한 목표 자체의 기능적 결과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개인의 목표차이에 기인된다고 가정하고 있다(오정묵, 2008). 특히, 성취목표성향은 스포츠나 운동상황에서 운동학습자들이 운동학습을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운동수행자의 태도와 수행이 달라지며, 이는 운동수행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 성취목표성향은 과제목표성향(task oriented goal)과 자아목표성향(ego oriented goal)으로 구분하고 있다(Duda, Chi & Newton,

1990). 이러한 관점에서 과제목표성향은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를 자신이 특정과제를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 혹은 숙달했는지와 같은 개인적 숙련과 자기발전의 범주에서 정의한다. 또한 자아목표성향은 개인이 성취상황에서 성공과 실패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나타난 승리와 패배의 범주에서 정의하며, 자신의 행위결과가 자신이 소유한 높은 능력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귀인시키는 주관적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1) 과제목표성향

과제목표성향은 비교의 준거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기록이 단축되었거나 기술이 향상되었을 때 자신이 노력을 많이 했다면 유능성 느낌이 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정청희, 김병준, 1999, 재인용). 또한 과제목표성향은 운동선수들이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성취하였을 때 만족하는 것을 뜻하며, 자신의 기술향상이나 기술습득에 더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장재근, 2008 재인용 pp. 19)

Ames(1984)에 따르면 과제목표성향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첫째, 과제목표의 속성적 특성은 과제목표 유형의 개인차와 이러한 기질적인 과제목표를 독립적인 과거 사회와 결과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과제목표의 상황적 특성으로 부모, 교사, 코치, 지도자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적 분위기가 개인의 과제목표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Duda & Chi(1989)의 연구에 의하면 감독이나 코치, 동료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는 상황적 분위기가 선수의 과제목표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Roberts(1984)는 시합이나 훈련 상황에서 기술, 경쟁, 자아의식 등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 과제목표와 관련된 기술을 향상시키며, 평가대상의 활동목표를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Nicholls(1989)는 과제목표성향은 비교의 준거가 되는 기준이 자신이며, 이는 기술이 향상되거나 노력을 많이 하였을 때 유능한 느낌이 들고, 성공했

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활동에서 과제에 대한 숙련과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자기를 참고로 향상되었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이들의 목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이 설정한 적절한 기분을 달성하는 것이다(박철우, 2009 ; 추수진, 2011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과제목표성향은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선수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실패시에도 끊임없이 다시 도전하는 등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는 운동선수들은 시합에서 상대선수에게 패배를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최초의 동기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말한다. 따라서 과제목표성향을 보유하는 운동선수들은 상대방이 아닌 자신과의 비교 평가를 통하여 성공을 정의하기 때문에 스포츠 현장에서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실망보다는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정청희, 김병준, 1999; 장재근, 2008 재인용 pp. 19).

(2) 자아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은 비교의 준거가 타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능력이 다른 선수들 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잘해야 되며, 다른 선수들과 동일하게 잘 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믿어 다른 선수들보다 노력을 덜 한다는 것이다(정청희, 김병준, 1999).

Nicholls(1989)는 자아목표성향을 비교의 준거로 기준이 타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개인의 능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능력에 대한 지각이 다른 사람과 비교된 기준으로 주관적인 자기능력을 평가하고, 능력감이나 성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남보다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배진희, 2010).

이러한 자기목표성향을 지닌 운동선수들은 내가 아닌 다른 선수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특히 강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경쟁을 선택하여 노력 없이 자신의 재능으로만 해결하려 하거나 또는 아주 어려운 도전으로 다른 선수들과 비교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장재근, 2008 재인용)

3) 스포츠 성취목표성향과 운동수행의 관계

성취목표성향 이론을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운동선수 개인의 성격성향의 과제목표성향 또는 자아목표성향이냐에 따라서 이에 대한 성취행동 유형 패턴을 분석하는데 편중되어 왔다.

Maehr & Nicholls(1980)의 연구를 기초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스포츠와 운동상황에서 성취목표성향과 운동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연구결과, 스포츠와 운동상황에서 다양한 성취목표성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Maehr & Nicholls, 1980; Dweck, 1986; Nicholls, 1984, 1989).

Nicholls(1989)는 남녀 운동선수 36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탐색적 요인기법과 확인적 요인기법을 이용하여 과제목표성향요인과 자기목표성향 요인을 추출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는 과제목표성향과 자기목표성향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성취목표성향을 설명하였으며, 과제목표성향 요인을 기술향상, 노력, 자신의 효능감으로 설명하고 자기목표성향 요인은 타인과 비교, 재능과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우월감으로 설명하여 두 요인의 행동적 차이를 구분하였다. 이는 운동선수들이 인지하는 성취목표성향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 요인과 운동수행능력에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경쟁적인 스포츠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Duda & Nicholls(1992)는 고교선수와 비 고교선수를 대상으로 목표지향성과 성공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자아목표지향성 학생의 경우 능력 소유를 성공 원인으로 신념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이 성취상황에서 성공과 실패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나타난 승리와 패배의 범주에서 정의하였으며, 자신의 행위 결과가 자신이 소유한 높

은 능력에 의하여 귀인시키는 주관적 확률을 최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왕성, 2007). 이와 같은 결과는 운동선수가 과제목표성향을 가져올 때는 성공원인을 코치나 동료 또는 부모와의 협력이나 노력 등에 두는 반면, 자기목표성향의 운동선수는 성공원인에 대한 신념을 상대선수와 비교하여 높은 능력 소유나 우월감에 두고 있다.

4)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의 선행연구

권오민(2008)은 태권도 지도자의 멘토링이 선수의 성취목표지향성, 스포츠 자신감 및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성취목표성향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 분석결과에서 과제목표지향성이 스포츠 자신감의 하위요인인 신체적/정신적 준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목표지향이 스포츠 자신감의 하위요인인 코치의 지도력, 능력입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 분석결과에서 자아목표지향성이 자기관리 하위요인인 신체관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목표지향성(과제목표지향성, 자아목표지향성)이 자기관리 하위요인인 정신관리, 훈련관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과제목표지향성이 자기관리 하위요인인 대인관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선(2009)은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과 내적동기가 스포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내적동기의 하위요인인 자아실현과 흥미결여에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자아목표지향성, 비교성취지향성은 스포츠 자신감에 유

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내적동기는 스포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내적동기의 하위요인인 자아실현, 흥미결여는 스포츠 자신감에 매우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내적동기 및 스포츠 자신감 간에는 인과관계가 중심으로 경로분석을 분석한 결과, 자아목표성향, 비교성취지향성, 자아실현, 흥미결여는 스포츠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자아목표성향, 비교성취지향성은 자아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태(2011)는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자신감과 경쟁상태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태권도 선수의 성취목표성향(자아지향적, 과제지향적)이 스포츠 자신감(능력입증, 사회적지지, 코치 지도력, 신체적, 정신적 준비)과 경쟁상태불안(인지적 상태불안, 신체적 상태불안)에서는 태권도 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은 스포츠 자신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아지향적 성취목표성향은 스포츠 자신감의 하위요인인 (능력입증, 사회적지지, 코치 지도력, 신체적, 정신적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제지향적 성취목표성향은 스포츠 자신감의 하위요인 중 능력입증과 사회적 지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취목표성향은 경쟁상태 불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자신감은 경쟁상태 불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연(2012)은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자기관리 전략, 성패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취목표성향이 자기관리 전략의 하위요인인 신체관리, 정신관리, 훈련관리, 대인관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 지도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 저하, 심리적 부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승부근성

1) 승부근성의 정의

승부근성은 시합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력이 강한 선수들이 승리에 대한 높은 집착적 행동을 나타내는 의미이며, 특히, 운동선수들이 강한 승부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아강도가 높아다는 것으로, 스포츠 경기에서 뿐만 아니라 연습경기에서 상대선수에게 패배를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승부근성은 정신력이 강인한 운동선수들의 성취욕구와 자존심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서(김원배, 2001; 추수진, 2011), 이러한 승부근성은 운동선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뜻하는 스포츠심리학 용어로, 미국에서는 상대편과의 승부를 멋지게 소화해 내는 선수를 가리킨다(두산동아백과사전, 2010). 그리고 국어사전적 의미로 승부(勝負)는 1) 이김과 짐, 2) 이기고 짐을 가르다, 3) 승부를 겨루다, 근성(根性)은 1)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성질, 2)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마음, 3)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끈질긴 성질(연세한국어사전, 2000) 등의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였을 때, 승부근성은 승부에 대한 강인한 집념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스포츠 용어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나 “승부 근성이 없다”, “승부 근성이 부족하다”고 할 때의 “승부 근성” 또는 “승부사 기질”, “끝내기 능력” 등의 표현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두산동아백과사전, 2010; 추수진, 2011).

김원배(2001)는 한국 문화권에서 정신력의 의미와 가치는 보다 독특하며, 정신적 측면의 강조는 한국인의 생활과 의식구조의 바탕인 유학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전통적인 서양사상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인지적인 우월론을 중시해 왔다면, 동양사상은 인간관계에서 개인의 성품과 역할을 중시하는 덕성 우월론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여 도(道)를 깨우치는 것을 중시해, 자신의 내면세계 혹은 정신세계를 강화하는 삶을 중시해 왔다.

따라서 서양의 스포츠 문화가 개인의 능력을 입증하고 집단의 조직력을 결속시키는 것을 가치화 한다면, 태권도와 유도, 검도 등과 같은 동양 스포츠 문화의 정신세계는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는 극기(克己)의 정신자세로 무심, 부동심, 깨닫음을 추구하는 과정과 수련을 통해서 도를 터득하는 자아의 실현, 또는 정신적 깨달음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이 추구하는 중요성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조긍호, 1997).

정청희, 이춘만, 김원배(1998)는 고등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정신력 측정 질문지를 개발한 결과 운동선수의 정신력은 자신감, 승부욕, 끈기, 오기, 긍정적인 생각요인, 몰입요인으로 주장하였으며, 김원배(2001)은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층 높은 재능과 기술을 향해 끊임없이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며, 선수들이 자신의 불리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굽히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끝까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승리하겠다는 선수의 강인한 의식을 의미하는 인내와 끈기, 분투노력, 승부욕, 불굴의 투지, 자신감이 정신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정택, 김성훈, 박윤식(2009)은 승부근성을 외국인 운동선수들에게 나타날 수 없는 우리나라 문화 내에서 특징적인 사회, 문화적 성격을 지니는 운동선수의 정신력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선수들이 시합 중 에너지가 고갈되어 힘든 상황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강인한 집념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시합에서 이기고자하는 심리적인 근성과 승부욕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승부근성의 하위변인으로 투혼, 승부욕, 자신감 등의 세부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2) 승부근성의 구성요인

(1) 투 혼

투혼은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한국선수들의 우수한 정신력을 대변해 주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는 투혼(鬪魂)이란 끝까지 투쟁하려

는 기백 혹은 끝까지 싸우려는 굳센 마음, 정신을 의미한다(두산동아백과사전, 2010). 이는 한국 운동선수의 우수한 정신력을 대변해 주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선수들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상대에게 굶지 않고 싸우려는 의지력을 의미하며, 선수들에게 시합 및 훈련 과정에서 패기와 악비리 근성을 발휘하도록 강조하는 것이다(김승환, 2009; 추수진, 2011).

신정택, 김정훈, 박윤식(2009)는 스포츠 현장에서 상대선수보다 정신력이 부족하거나, 힘들어도 끝까지 참으며, 경기 중 부상을 당하거나 극한 상황에서 참고 견디고, 다시 일어나 끝까지 밀어붙이는 정신력을 투혼이라 설명하고 있다. 특히, 훈련이나 경기상황에서 힘든 상황을 견디내는 힘을 의미하며, 정신력이 강인한 선수들은 시합과 연습의 위기상황에 대한 끈기를 보이는 것으로, 고통을 참는데 있어서 강인한 인내력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⑵ 승부욕

운동선수가 운동경기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승부욕(勝負慾)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와 경쟁을 하여 승부를 내거나 이기려고 하는 욕구나 욕심, 또는 시합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운동선수들이 정신력으로 표상화한 것이다(김원배, 2001). 특히, 한국의 스포츠 문화 속에서 승자와 패자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선수들에게 지나친 승리 집착적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가 되고 있으며, 시합과 경쟁 속에서 오직 승리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은 선수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스포츠의 역기능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으로, 김원배(2001)는 승부욕의 원자료에서 “시합에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 이기고 싶다는 승부욕구가 강할 때”, 정신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승부욕은 이기려는 마음, 지기 싫어하는 마음, 상대방을 이겨야겠다는 마음은 모든 선수들이 시합에 출전하면서 크고 작은 승부에 대

한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점에 있어 승부욕은 시합상황에서 이기려는 운동선수들이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는 승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적인 이득과 사회적인 지지와 패자에게 느껴지는 냉소적인 대접과 자신의 자아상실로 인해 대부분의 선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심리상태이다(추수진, 2011). 대부분 운동선수들은 이러한 승리와 패배에 대한 커다란 평가적 차이를 직시하고 시합에서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성격적으로 자아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수들은 모든 시합에서 상대방을 이기겠다는 생각과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겨야겠다는 강한 승부 근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승부욕을 정신력이라 할 수 있다.

(3) 자신감

자신감은 상식적인 의미에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감은 성공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다(Weinberg & Goud, 1995). 이러한 확신 속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며, 개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 즉, 자신감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 이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 이론에서 결과를 산출하도록 요구한 행동을 한 개인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대인 효능기대(efficacy expectation)와 주어진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기대인 결과 기대는 차이가 있으며, 이 두 기대는 결과를 향한 활동 과정 속에서 구별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Vealey(1986)는 자기효능감 이론과 유능성 동기이론을 기반으로 스포츠에 특유한 스포츠 자신감이론을 발전시켰다. 스포츠 자신감 이론은 스포츠 경기에서 성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개인의 확신으로, 스포츠 경기상황에서 목표를 성취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경쟁지향성(competitive orientation)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 자신감은 경쟁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유능성 동기와는 다르다. 성공은 사람마다 상이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포츠 자신감의 측정을 통하여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자신감의 토대가 되는 목표를 측정하는 일이 또한 요구된다(Roberts, 1984).

스포츠 심리학분야에서 자신감은 자기효능감, 유능감과 함께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으며(Feltz, 1982; Vealey, 1986), 여기에서 자신감(confidence)과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구분지어 살펴보면, 자신감은 전반적인 수행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능력의 수준을 뜻하지 않는다. 반면에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인 것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감과 같은 인지적 요인이 운동수행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경기 승패의 가능성에 대하여 자신의 느낌이나 심상이 자신감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의 지표이며, 경기력의 가장 좋은 예측 수단의 하나이다(이소연, 2006).

3) 승부근성의 선행연구

김원배(2001)는 한국 문화권에서 정신력의 의미와 가치는 보다 독특하며, 정신적 측면의 강조는 한국인의 생활과 의식구조의 바탕인 유학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동양사상에서는 인간관계에서 개인의 성품과 역할을 중시하는 덕성 우월론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여 도(道)를 깨우치는 것을 중시해, 자신의 내면세계 혹은 정신세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서양의 스포츠 문화가 개인의 능력을 입증하고 집단의 조직력을 결속시키는 것을 가치화한다면, 태권도와 유도, 검도 등과 같은 전통적 동양 스포츠 문화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고양하고 수련하여 도를 터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층 높은 재능과 기술을 향해 끊임없어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며, 선수들이 자신의 불리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굽히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끝까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승리하겠다는 선수의 강인

한 의식을 의미하는 승부욕, 분투노력, 인내끈기, 불굴의 투지가 정신력이라고 제시하였다.

신정택, 김성훈, 박윤식(2009)은 북경올림픽에 참가하는 국내 정상급 운동선수 100명 대상으로 승부근성을 개발하였으며,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제1요인 승부욕은 시합이나 경기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정상적 운동선수들이 승부근성으로 표상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요인 투혼은 끝까지 참고 이기려고 하는 강인한 의지라는 의미로 신문이나 방송 매스컴에서 한국 운동선수들의 우수한 정신력을 대변해 주는 심리적인 표상화이다. 제3요인 자신감은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경쟁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거나 주어진 과제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표상화 하였다. 따라서 승부근성은 운동선수들이 힘든 상황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강인한 집념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심리적인 근성과 승부욕을 의미하며, 승부근성의 하위변인으로 투혼, 자신감, 승부욕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김영미, 이화석, 한혜원(2010)은 대학운동선수의 승부근성이 자기관리와 경기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대학운동선수의 승부근성 중 투혼근성과 승부욕 근성은 몸관리와 정신관리, 훈련관리에 자신감 근원은 대인관리와 정신관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부근성이 높은 선수일수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운동선수의 승부근성 요인 중 승부욕은 학생들의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운동선수들이 승부욕이 높을수록 경기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운동선수의 경기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자기관리, 승부근성 순으로 승부근성은 대학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쳐 경기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추수진(2011)은 대학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 및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대학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중에서 성

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자아성향과 과제성향은 투혼, 승부욕, 자신감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대학운동선수의 승부근이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투혼과 승부욕이 운동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3. 경기력

경기력은 체력, 심리기술, 경기기술, 전술 등의 경기력 구성요인 함수 관계가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체력과 기술은 훈련방법과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그 결과를 비교적 쉽게 평가하거나 정량화 시킬 수 있지만 심리적, 사회적 요인은 인간의 내면적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하거나 정량화 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경기력은 스포츠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주제로서, 스포츠 과학 분야 및 스포츠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기력은 스포츠 상황에서 경기력의 역할이 왜 필요한가를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 그 동안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양적연구방법 및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각 스포츠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기상황에 맞게 다각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력(Performance)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스포츠 경기상황에서 운동선수 및 팀이 발휘하는 기술을 포함한 종합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게 되는데, 유전적인 요인은 물론, 체격, 체력, 훈련량, 훈련기간 및 심리적인 상태, 경험유무, 경기장의 조건 등 내적·외적인 요인으로 신체적, 형태학적,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인 요인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Cratty(1967)는 특정 스포츠에서 경기력은 생리적, 역학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다고 제시하고 있으며(Alderman, 1974), 스포츠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운동 기능과 심리적 변인의 함수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다(오윤경, 2008).

Loehr(1982)는 운동선수가 시합 중에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체는 물론 정신적인 체력이 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신적인 힘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심리적인 기능을 구체화시키려면 집중력의 향상, 일상적인 생활태도의 관리능력, 및 기술의 시각화 조절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신력이란, 몸과 마음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한 정신력은 신체적 · 정신적인 자기관리 능력의 조화가 전제조건임을 알 수 있다.

김의환, 이학래, 김정행, 김상철, 최종삼, 김기진(1991)는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력은 신체적인 면(physical aspect), 정신적인 면 (metal aspect), 기술적인 면(technical aspect)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기술적 요인과 같은 선수 개인 특성 요인에 의하여 경기력이 결정 된다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단체 등록한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culster random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표본추출은 제40회 전국대학개인선수권대회, 제43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제48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제36회 한국대학연맹전국 태권도대회에 참가한 대학 여성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총 455명을 표집 하였다.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결측치가 있는 18부의 자료는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 437명의 사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	비율(%)
소속	고등부	168	38.4
	대학부	154	35.2
	일반부	115	26.3
	합계	437	100.0
운동경력	5년 미만	66	15.1
	5년 이상~10년 미만	282	64.5
	10년 이상~15년 미만	84	19.2
	15년 이상	5	1.1
	합계	437	100.0
입상경력	전국대회입상	387	88.6
	전국대회미입상	30	6.9
	시,도,군대회입상	11	2.5
	시,도,군대회미입상	9	2.1
	합계	437	100.0

2. 조사도구

여성 태권도 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 및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지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통해 설문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사용했던 도구 가운데 본 연구의 과제에 적절한 설문지를 선별하여 수정·보완하여 이 연구의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표 2. 설문지의 구성내용 및 문항수

구성 지표		구성내용	문항 수	총 문항 수
배경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속	1	4
		선수경력	1	
		입상경력	1	
독립변수	성취목표성향	과제목표성향	7	14
		자아목표성향	7	
매개변수	승부근성	투혼	9	20
		승부욕	5	
		자신감	6	
종속변수	경기력	경기력	5	

1)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의 측정은 Duda & Nicholls(1989)가 개발한 성취목표검사지(TEOSQ : 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를 변영신(1993), 성창훈(1995)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서로 독립적인 과제관련 목표지향을 묻는 7개의 문항과 자아관련 목표지향을 묻는 7개 문항으로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 승부근성

승부근성 척도는 신정택, 김성훈, 박윤식(2009)이 개발하고, 김영미, 이화석, 한혜원(2010)이 사용한 바 있는 승부근성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서로 독립적인 투혼을 묻는 10개의 문항, 승부욕을 묻는 7개문항, 자신감을 묻는 7개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분석시 18번 문항(나는 시합에서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과 19번 문항(나는 상대선수가 두렵다)은 역코딩 처리 하였다. 또한 각 문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 경기력

경기력 척도는 Fiedler & Billo(1973)에 의해 개발한 척도를 김경수(2011), 송지훈(2010), 김수연(2010)이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단일요인이며, 총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4)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소속, 선수경력, 입상경력등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소속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구분하였으며, 선수경력은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1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입상경력은 전국대회입상, 전국대회 미입상, 시·도·군 대회입상, 시·도·군 대회미입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들 변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여성 태권도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및 경기력 설문지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실시하였다. 타당도는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즉, 특정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측정도구가 해당속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김경식, 2005). 다음으로 문항의 적합성 여부는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을 통해 최종 내용타당도(Gerbing & Anderson, 1988)를 검증하였다. 각 요인분석의 최적 상태는 다음 적합도 지수를 통해서 평가하였다. CFI(Comparative Fit Index) 및 TLI(Nonnormed Fit Idex)값 0.9이상,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값 0.08 이하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홍세희, 2000). 신뢰도는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측정을 반복하였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의 분산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측정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이 내표된 개념으로서, 설문지의 신뢰도는 연구방법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요인이다(김경식, 2005).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 기법(internal consistency method)인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α값은 0.6이상 또는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송지준, 2009; Nunnally & Berstein, 1994).

1)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은 과제목표지향, 자아목표지향의 2가지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개의 문항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결과 요인 적재값이 낮은 2번, 3번,

4번, 13번, 14번 문항이 삭제되었다. 그 결과 모형 적합도는 X2=92.149 (p=.000), df=26, TLI=.934, CFI=.952, RMSEA=.076으로 나타났다.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앞서 제시한 이론적 기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성취목표 성향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	적합기준	분석결과	적합여부
TLI	.9 이상	.934	적합
CFI	.9 이상	.952	적합
RMSEA	.8 이하	.076	적합
X^2=92.149, df=26, p=.000			

<그림 1>은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의 공분산 설정 모형을 나타낸다. 과제목표지향, 자아목표지향의 요인적재량은 .49~.74로 나타나(우종필, 2012) 문항들이 각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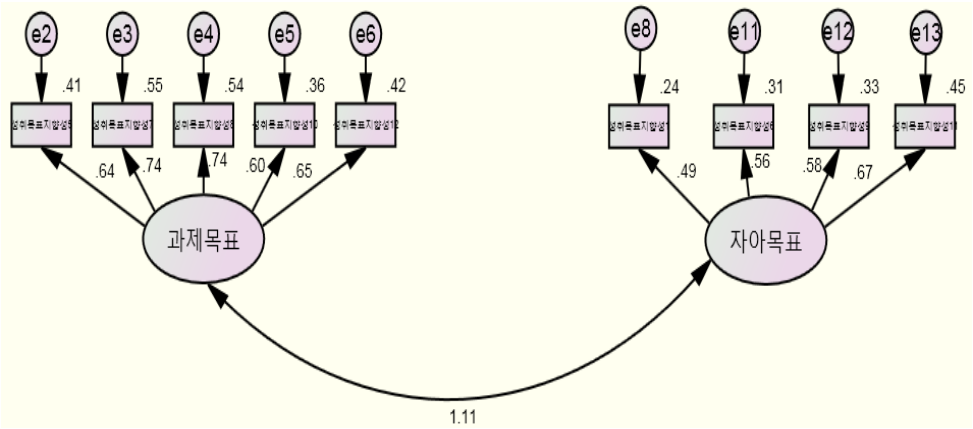

그림 2. 성취목표성향의 공분산 설정모형

2) 승부근성

승부근성은 승부욕, 투혼, 자신감의 3가지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개의 문항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결과 요인 적재값이 낮은 2번, 5번, 7번, 9번, 11번, 12번, 13번, 15번, 16번, 19번, 21번, 23번문항이 삭제되었다. 그 결과 모형 적합도는 X2=177.485(p=.000), df=51, TLI=.926, CFI=.943, RMSEA =.075으로 나타났다.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앞서 제시한 이론적 기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과 같다.

표 4. 승부근성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	적합기준	분석결과	적합여부
TLI	.9 이상	.926	적합
CFI	.9 이상	.943	적합
RMSEA	.8 이하	.075	적합
X^2=177.485, df=51, p=.000			

<그림 2>는 승부근성의 공분산 설정 모형을 나타낸다. 과제관련 목표지향, 자아관련 목표지향의 요인적재량은 .40～.83으로 나타나(우종필, 2012) 문항들이 각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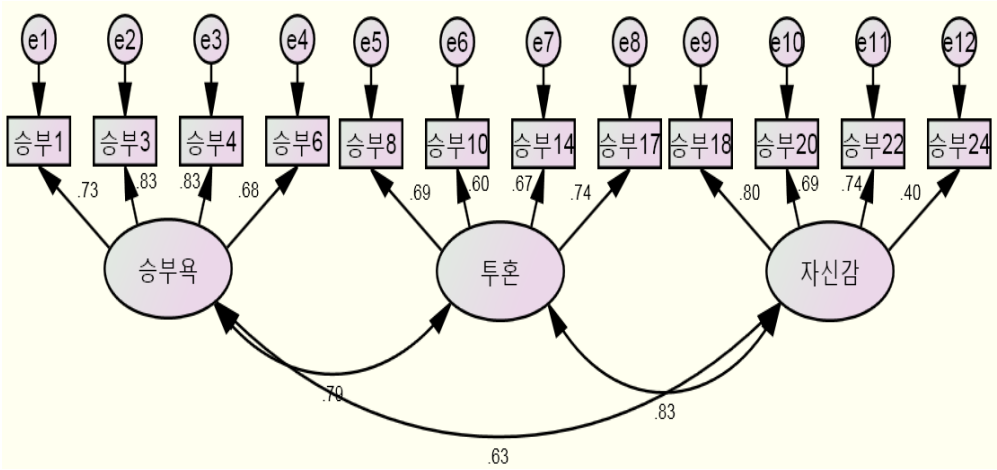

그림 3. 승부근성의 공분산 설정모형

3) 경기력

경기력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개의 문항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결과 모형 적합도는 X2=63.012(p=.000), df=5, TLI=.902, CFI=.951, RMSEA=.079로 나타났다.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앞서 제시한 이론적 기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5>과 같다.

표 5. 경기력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	적합기준	분석결과	적합여부
TLI	.9 이상	.902	적합
CFI	.9 이상	.951	적합
RMSEA	.8 이하	.079	적합
X^2=63.012, df=5, p=.000			

<그림 4>는 승부근성의 단일모형을 나타낸다. 과제관련 목표지향, 자아관련 목표지향의 요인적재량은 .58~.91으로 나타나(우종필, 2012) 문항들이 각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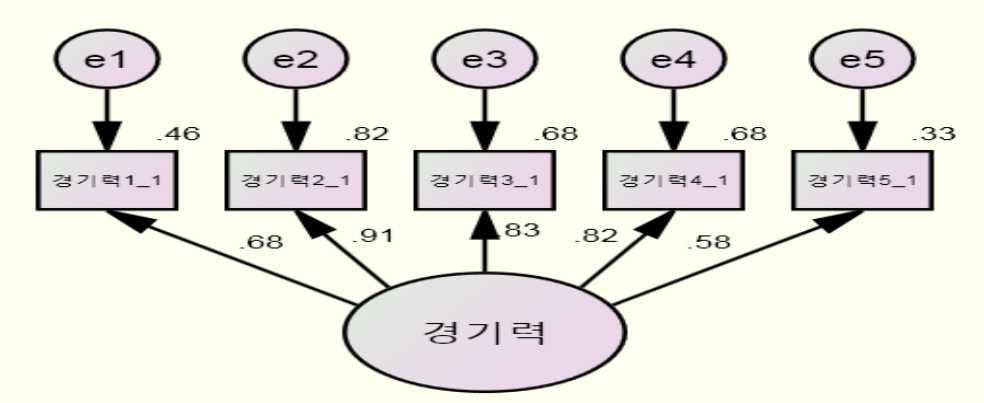

그림 4. 경기력의 단일요인모형

4) 신뢰도 분석의 결과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을 통해 구성된 각 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성취목표성향의 하위변인인 과제목표지향의 Cronbach's α값은 .802이며, 자아목표지향의 Cronbach's α값은 .65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승부근성의 하위변인인 승부욕의 Cronbach's α값은 .849, 투혼의 Cronbach's α값은 .770, 자신감의 Cronbach's α값은 .7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력의 Cronbach's α값은 .8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지준(2009), Nunnally과 Berstein(1994)이 제시한 기준값을 모두 만족한 결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구 분	하위변인	최종문항수	Cronbach's α
성취목표성향	과제목표지향	5	.802
	자아목표지향	4	.655
승부근성	승부욕	4	.849
	투혼	4	.770
	자신감	4	.737
경기력	단일요인	5	.875

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기재한 자료를 회수한 다음 분석 가능한 유효 표본만을 대상으로 SPSS 18.0, AMOS 18.0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통계처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연구 대상들의 전반적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둘째,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과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셋째, 실제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관계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설Ⅰ을 검증하기 위하여 one-way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Ⅱ~가설Ⅳ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결 과

1) 상관분석결과

자아목표성향, 과제목표성향, 승부욕, 투혼, 자신감, 경기력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앞서 단일차원성이 확인된 관측변수에 대해서 항목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항목묶음(item parceling)이 실시된 구성요인들의 상호관련성 및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구성변인 끼리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자아목표성향(1)	1					
과제목표성향(2)	.819**	1				
승부욕(3)	.486**	.420**	1			
투혼(4)	.512**	.451**	.665**	1		
자신감(5)	.624**	.511**	.565**	.627**	1	
경기력(6)	.170**	.146**	.107**	.239**	.383**	1

** *p<.01*

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경기력의 차이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의 차이

<표 8>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의 차이에 대한 one-way ANOVA 및 사후검증(Bonferroni)결과이다. 소속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차이 분석결과 과제목표성향(F=.392)과 자아목표성향(F=.299)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경력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차이 분석결과 과제목표성향(F=9.241***)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Bonferroni)결과 5년 미만에 비해 5년 이상~10년 미만 그리고 15년 이상이 과제목표성향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목표성향(F=13.138***)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Bonferroni)결과 5년 미만에 비해 5년 이상~10년 미만, 11년 이상~15년 미만 그리고 15년 이상이 자아목표성향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상경력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차이 분석결과 과제목표성향(F=9.234***)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Bonferroni)결과 전국대회 미입상에 비해 전국대회입상과 시·도·군 입상이 과제목표성향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목표성향(F=6.709***)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Bonferroni)결과 전국대회미입상과 시·도·군대회입상에 비해 전국대회입상이 자아목표성향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의 차이

구 분		성취목표성향	
		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
소속	고등부	3.650±.594	3.583±.602
	대학부	3.600±.721	3.571±.666
	일반부	3.664±.602	3.682±.600
	F-value	.392	.299
	Posthoc(Bonferroni)	NS	NS
선수경력	5년 미만[a]	3.430±.536	3.250±.468
	5년 이상~10년 미만[b]	3.668±.648	3.659±.638
	11년 이상~15년 미만[c]	3.616±.627	3.642±.572
	15년 이상[d]	4.880±.109	4.600±.335
	F-value	9.241***	13.138***
	Posthoc(Bonferroni)	a<b,d	a<b,c,d
입상경력	전국대회입상[a]	3.687±.625	3.647±.606
	전국대회미입상[b]	3.260±.689	3.316±.632
	시,도,군, 대회입상[c]	2.927±.621	2.977±.890
	시,도,군 대회미입상[d]	3.555±.343	3.527±.422
	F-value	9.234***	6.709***
	Posthoc(Bonferroni)	b<a,c	b,c<a

*** *p<.001*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승부근성의 차이

<표 9>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승부근성의 차이에 대한 one-way ANOVA 및 사후검증(Bonferroni)결과이다. 소속에 따른 승부근성의 차이 분석결과 승부욕(F=.048)과 투혼(F=2.263)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신감(F=3.602*)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Bonferroni)결과 고등부에 비해 일반부가 자신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경력에 따른 승부근성의 차이 분석결과 승부욕(F=12.704***)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Bonferroni)결과 5년 미만에 비해 5년 이상~10년 미만, 11년 이상~15년 미만 그리고 15년 이상이 승부욕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혼(F=9.031***)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Bonferroni)결과 5년 미만에 비해 5년 이상~10년 미만, 15년 이상이 자아목표성향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F=13.221***)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으며, 5년 미만에 비해 5년 이상~10년 미만, 11년 이상~15그리년 미만 그리고 15년 이상이 자신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상경력에 따른 승부근성의 차이 분석결과 승부욕(F=2.958*)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Bonferroni)결과 시·도·군, 대회입상에 비해 시·도·군 대회미입상이 승부욕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혼(F=2.519)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감(F=3.973***)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Bonferroni)결과 시·도·군, 대회입상에 비해 전국대회입상자와 시·도·군 대회미입상자가 자신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승부근성의 차이

구 분		승부근성		
		승부욕	투혼	자신감
소속	고등부[a]	3.913±.775	3.712±.589	3.572±.599
	대학부[b]	3.936±.616	3.818±.697	3.668±.682
	일반부[c]	3.925±.667	3.871±.655	3.778±.615
	F-value	.048	2.263	3.602*
	Posthoc(Bonferroni)	NS	NS	a<c
선수 경력	5년 미만[a]	3.507±.687	3.481±.611	3.261±.383
	5년 이상~10년 미만[b]	3.992±.638	3.862±.637	3.735±.664
	11년 이상~15년 미만[c]	3.982±.626	3.753±.628	3.678±.586
	15년 이상[d]	4.650±.335	4.550±.512	4.400±.223
	F-value	12.704***	9.031***	13.221***
	Posthoc(Bonferroni)	a<b,c,d	a<b,d	a<b,c,d
입상 경력	전국대회입상[a]	3.950±.663	3.816±.661	3.675±.634
	전국대회미입상[b]	3.833±.627	3.500±.464	3.608±.652
	시,도,군, 대회입상[c]	3.386±.903	3.636±.616	3.068±.488
	시,도,군 대회미입상[d]	3.777±.263	3.888±.356	3.944±.569
	F-value	2.958*	2.519	3.973***
	Posthoc(Bonferroni)	c<b	NS	c<a,d

* *p<.05*, *** *p<.001*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기력의 차이

<표 10>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기력의 차이에 대한 one-way ANOVA 및 사후검증(Bonferroni)결과이다. 소속에 따른 경기력(F=1.889)의 차이 분석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경력에 따른 경기력(F=5.746**) 차이 분석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Bonferroni)결과 5년 미만에 비해 5년 이상~10년 미만 그리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경기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상경력에 따른 경기력(F=8.054***) 차이 분석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Bonferroni)결과 전국대회입상에 비해 시·도·군 대회 미입상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대회미입상에 비해 시·도·군 대회미입상이 경기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도·군 입상자에 비해 시·도·군 대회 미입상자가 경기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기력의 차이

구 분		경 기 력
소속	고등부	3.148±.797
	대학부	3.067±.900
	일반부	3.273±.888
	F-value	1.889
	Posthoc(Bonferroni)	NS
선수경력	5년 미만[a]	2.784±.714
	5년 이상~10년 미만[b]	3.180±.897
	11년 이상~15년 미만[c]	3.326±.771
	15년 이상[d]	3.520±.657
	F-value	5.746**
	Posthoc(Bonferroni)	a<b,c

입상경력	전국대회입상[a]	3.149±.830
	전국대회미입상[b]	2.793±1.029
	시,도,군, 대회입상[c]	3.272±.652
	시,도,군 대회미입상[d]	4.355±.746
	F-value	8.054***
	Posthoc(Bonferroni)	a<d, b<d, c<d

** *p<.01*, *** *p<.001*

3)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

(1)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의 하위변인인 투혼에 미치는 영향

<표 11>은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투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형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과제목표성향(β=.095)은 투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자아목표성향(β=.452***)은 투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형1의 설명력은 22.6%(R2=.266, adj R2=.2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통제변수인 소속, 선수경력, 입상경력등을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다. 모형1과 마찬가지로 과제목표성향(β=.107)은 투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자아목표성향(β=.409***)은 투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모형2의 설명력은 29.1%(R2=.291, adj R2=.2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과제목표성향(β=.164*)과 자아목표성향(β=.386***)은 투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의 상호작용항(β=.118***)은 투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호작용항 분석 시 발생하는 다중공성선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은 Z-SCORE로 변환하였으며(허준, 2013), 이들 모형의 설명력은 34.6%(R2=.346, adj R2=.3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투혼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모 형 1		모 형 2		모 형 3	
		비표준화 β	S·E	비표준화 β	S·E	비표준화 β	S·E
독립변수	상수	1.820***	.162	1.725***	.257	1.537***	.173
	과제목표성향	.095	.072	.107	.074	.164*	.071
	자아목표성향	.452***	.074	.409***	.076	.386***	.073
통제변수	소속(준거:고등부)						
	대학부			.105	.062	.071	.060
	일반부			.137*	.068	.124	.066
	선수경력(준거:5년 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79*	.080	.160*	.077
	11년이상~15년미만			.069*	.094	.066	.091
	15년이상			.381	.266	.045	.262
	입상경력(준거:전국대회입상)						
	전국대회미입상			-.150	.107	-.147	.103
	시,도,군대회입상			.195	.173	.052	.169
	시,도,군,대회미입상			.077	.187	.158	.181
상호작용	z과제목표성향 × z자아목표성향					.118***	.020
R^2(adj R^2)		.266(.262)		.291(.275)		.346(.329)	

* *p<.05*, ** *p<.01*, *** *p<.001*

주1) 소속, 선수경력, 입상경력은 더미(dummy)변수화 하였음.

주2) 상호작용항은 z-score로 변환하였음.

(2)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의 하위변인인 승부욕에 미치는 영향

<표 12>은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형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과제목표성향(β=.070)은 승부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자아목표성향(β=.459***)은 승부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형1의 설명력은 23.7%(R2=.237, adj R2=.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통제변수인 소속, 선수경력, 입상경력 등을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다. 모형1과 마찬가지로 과제목표성향(β=.087)은 투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자아목표성향(β=.391***)은 투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모형2의 설명력은 26.8%(R2=.268, adj R2=.250)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과제목표성향(β=.140)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자아목표성향(β=.370***)은 승부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의 상호작용항(β=.107***)은 승부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호작용항 분석 시 발생하는 다중공성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은 Z-SCORE로 변환하였으며(허준, 2013), 이들 모형의 설명력은 31.0%(R2=.310, adj R2=.2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욕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모 형 1		모 형 2		모 형 3	
		비표준화 β	S·E	비표준화 β	S·E	비표준화 β	S·E
독립 변수	상수	2.014***	.170	1.954***	.185	1.738***	.182
	과제목표성향	.070	.076	.087	.077	.140	.075
	자아목표성향	.459***	.078	.391***	.080	.370***	.077
통제 변수	소속(준거:고등부)						
	대학부			-.007	.065	-.038	.064
	일반부			-.037	.071	-.049	.069
	선수경력(준거:5년 미만)						
	5년이상~10년미만			.306***	.083	.289***	.081
	11년이상~15년미만			.302***	.098	.299**	.096
	15년이상			.472	.278	.166	.277
	입상경력(준거:전국대회입상)						
	전국대회미입상			.039	.112	.041	.109
	시,도,군대회입상			-.237	.181	-.367*	.178
	시,도,군,대회미입상			-.154	.196	-.081	.191
상호 작용	z과제목표성향 × z자아목표성향					.107***	.021
R^2(adj R^2)		.237(.234)		.268(.250)		.310(.292)	

* *p<.05*, ** *p<.01*, *** *p<.001*

주1) 소속, 선수경력, 입상경력은 더미(dummy)변수화 하였음.

주2) 상호작용항은 z-score로 변환하였음.

(3)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의 하위변인인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표 13>은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형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과제목표성향(β=.000)은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자아목표성향(β=.636***)은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형1의 설명력은 39.0%(R2=.390, adj R2=.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통제변수인 소속, 선수경력, 입상경력등을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다. 모형1과 마찬가지로 과제목표성향(β=.031)은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자아목표성향(β=.575***)은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모형2의 설명력은 42.2%(R2=.422, adj R2=.4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과제목표성향(β=.069)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자아목표성향(β=.560***)은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의 상호작용항(β=.078***)은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호작용항 분석 시 발생하는 다중공성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은 Z-SCORE로 변환하였으며(허준, 2013), 이들 모형의 설명력은 44.7%(R2=.447, adj R2=.4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비표준화 β	S·E	비표준화 β	S·E	비표준화 β	S·E
독립변수	상수	1.366***	.170	1.225***	.157	1.101***	.156
	과제목표성향	.000	.065	.031	.065	.069	.065
	자아목표성향	.636***	.067	.575***	.068	.560***	.066
통제변수	소속(준거:고등부)						
	대학부			.077	.055	.054	.055
	일반부			.140*	.061	.131*	.059
	선수경력(준거:5년 미만)						
	5년이상~10년미만			.221**	.071	.208**	.069
	11년이상~15년미만			.156	.084	.154	.082
	15년이상			.295	.236	.072	.237
	입상경력(준거:전국대회입상)						
	전국대회미입상			.127	.095	.128	.093
	시,도,군대회입상			-.168	.154	-.263	.152
	시,도,군,대회미입상			.279	.166	.333	.018
상호작용	z과제목표성향 × z자아목표성향					.078***	.018
R^2(adj R^2)		.390(.387)		.422(.409)		.447(.432)	

* *p<.05*, ** *p<.01*, *** *p<.001*

주1) 소속, 선수경력, 입상경력은 더미(dummy)변수화 하였음.

주2) 상호작용항은 z-score로 변환하였음.

4)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1)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표 14>은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형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과제목표성향(β=.027) 및 자아목표성향(β=.211)은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으며, 모형1의 설명력은 2.9%(R2=.029, adj R2=.0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통제변수인 소속, 선수경력, 입상경력 등을 투입하였을 때 결과, 과제목표성향(β=.061) 및 자아목표성향(β=.121)은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모형2의 설명력은 11.5%(R2=.115, adj R2=.0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과제목표성향(β=.098) 및 자아목표성향(β=.106)은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상호작용항 분석 시 발생하는 다중공성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은 Z-SCORE로 변환하였으며(허준, 2013), 이들 모형의 설명력은 12.7%(R2=.127, adj R2=.1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비표준화 β	S.E	비표준화 β	S.E	비표준화 β	S.E
독립변수	상수	2.295***	.247	2.191***	.262	2.070***	.265
	과제목표성향	.027	.110	.061	.109	.098	.109
	자아목표성향	.211	.113	.121	.113	.106	.112
통제변수	소속(준거:고등부)						
	대학부			-.130	.093	-.153	.093
	일반부			.072	.101	.064	.101
	선수경력(준거:5년 미만)						
	5년이상~10년미만			.335**	.118	.322**	.117
	11년이상~15년미만			.498***	.140	.496***	.139
	15년이상			.571	.395	.354	.402
	입상경력(준거:전국대회입상)						
	전국대회 미입상			-.295	.158	-.294	.157
	시,도,군대회 입상			.316	.257	.223	.258
	시,도,군,대회 미입상			1.179***	.278	1.231***	.277
상호작용	z과제목표성향 × z자아목표성향					.076*	.030
R^2(adj R^2)		.029(.024)		.115(.094)		.127(.105)	

* *p<.05*, ** *p<.01*, *** *p<.001*

주1) 소속, 선수경력, 입상경력은 더미(dummy)변수화 하였음.

주2) 상호작용항은 z-score로 변환하였음.

(2) 승부근성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표 15>은 승부근성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형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승부욕(β=-.270**) 및 자신감(β=.587**)은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투혼(β=.140)은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형1의 설명력은 16.9%(R2=.169, adj R2=.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통제변수인 소속, 선수경력, 입상경력 등을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다. 모형1과 마찬가지로 승부욕(β=-.267**) 및 자신감(β=.562**)은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투혼(β=.121)은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모형2의 설명력은 23.7%(R2=.237, adj R2=.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승부욕(β=-.254**) 및 자신감(β=.549***)은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투혼(β=.123)은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상호작용 분석결과 투혼과 승부욕의 상호작용항(β=.007), 투혼과 자신감의 상호작용항(β=-.022), 승부욕과 자신감의 상호작용항(β=.040)은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상호작용항 분석시 발생하는 다중공성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은 Z-SCORE로 변환하였으며(허준, 2013), 이들 모형의 설명력은 23.8%(R2=.238, adj R2=.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승부근성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비표준화 β	S.E	비표준화 β	S.E	비표준화 β	S.E
독립변수	상수	1.532***	.257	1.526***	.257	1.479***	.267
	투혼	.140	.085	.121	.085	.123	.087
	승부욕	-.270**	.078	-.267**	.078	-.254**	.080
	자신감	.587***	.078	.562***	.078	.549***	.084
통제변수	소속(준거:고등부)						
	대학부			-.183*	.086	-.172	.088
	일반부			-.045	.095	-.031	.097
	선수경력(준거:5년 미만)						
	5년이상~10년미만			.221*	.111	.228*	.113
	11년이상~15년미만			.437**	.130	.450**	.132
	15년이상			.361	.363	.350	.365
	입상경력(준거:전국대회입상)						
	전국대회미입상			-.309*	.146	-.306*	.147
	시,도,군대회입상			.376	.239	.378	.243
	시,도,군,대회미입상			1.004***	.261	1.004***	.261
상호작용	z투혼×z승부욕					.007	.059
	z투혼×z자신감					-.022	.051
	z승부욕×z자신감					.040	.060
R^2(adj R^2)		.169(.164)		.237(.217)		.238(.213)	

* *p<.05*, ** *p<.01*, *** *p<.001*

주1) 소속, 선수경력, 입상경력은 더미(dummy)변수화 하였음.

주2) 상호작용항은 z-score로 변환하였음.

2. 논 의

이 연구는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의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첫째,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경기력의 차이, 둘째, 여성 태권도 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 셋째, 여성 태권도 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넷째, 여성 태권도 선수의 승부근성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경기력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 선수경력에 따른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차이를 분석결과, 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상경력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차이를 분석결과, 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선(2009)은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선수경력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과제목표지향성에서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력 수준에 따른 자아목표성향, 과제목표지향성은 우수선수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정두리(2011)는 고교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운동경력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의 차이에서는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 중 자아지향적 성향의 경우에는 1-3년 미만이 집단보다 7년 이상인 집단이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제지향적 성향의 경우에는 1-3년 미만인 집단보다 7년 이상이 집단이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김병태(2011)은 태권도 선수의 경기수준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의 차이 검증에서는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자아지향적 성취목표성향 요인과 목표지향성 성취목표성향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지향적 성취목표성향에서는 최우수 선수가 우수선수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지향성 성취목표성향에서는 최우수선수가 비우수선수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둘째, 소속에 따른 승부근성의 차이에서는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수경력에 따른 승부근성의 차이에서는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승부욕, 투혼, 자신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상경력에 따른 승부근성의 차이에서는 승부욕, 투혼, 자신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배(2001)는 스포츠 정신력은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을 힘들고 고통스런 상황을 고통스런 상황을 투지와 인내력으로 극복하거나 승리해야겠다는 강한 성취 욕구에 의해 표출되는 것으로, 투기종목 선수들은 정신력을 인내력, 승부욕, 불굴의 투지, 한계상황극복, 분투노력, 자신감, 집중력 등과 같은 내용으로 심리적 표상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선수경험에 따른 스포츠 정신력의 차이검증에서 스포츠 정신력 하위요인인 인내/끈기, 불굴의 투지, 분투노력, 승부욕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입상경험에 따른 스포츠 정신력를 분석한 결과, 입상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경험이 적은 선수들보다 정신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상경험이 있는 태권도 선수들은 심리적으로 자신감과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용남(2008)은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운동경력에 다른 정신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1-15년 이상 태권도 운동경력을 지닌 집단에서 정신력의 하위요인인 승부욕 요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감, 분투노력, 인내와 끈기, 불굴의 의지의 영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력 수준에 따른 스포츠 정신력의 차이에서 승부욕 요인에서만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수진(2011)은 대학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운동경력별에 따른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투혼, 승부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성적수준에 따른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투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셋째, 선수경력, 입상경력에 따른 경기력의 차이를 분석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주(2013)는 중,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입상경력에 따른 경기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지훈(2013)은 중,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입상경력에 따른 경기력에서 5회 이상 집단, 3회 이상 집단, 없음, 4회 이상 집단, 2회 이상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투혼, 승부욕, 자신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진영(2009)은 요트선수들의 정신력과 성취목표성향의 관계에서 과제지향성이 정신력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에너지가 시각 및 심상조절, 주의조절능력 보다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지향성이 정신력의 하위요인인 동기수준이 주의조절능력 보다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기선(2009)은 고등학교 태권도선수를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자아목표지향성, 과제목표지향성은 스포츠 자신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제목표지향성은 자아목표지향성에 비해 스포츠 자신감에 더 큰 영향력을 있는 것으로, 김병태(2011)는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 요인 중 자아지향적 요인, 과제지향적 요인 모두

스포츠 자신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추수진(2011)는 대학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투혼, 자신감, 승부욕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첫째, 성취목표성향이 투혼에 미치는 영향으로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자아성향, 과제성향이 투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취목표성향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자아성향, 과제성향이 자신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취목표성향이 승부욕에 미치는 영향으로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자아성향이 승부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승부근성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승부욕 및 자신감은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진(2006)은 경륜선수의 경기력 관리요인 중 경기전략의 기반이 되는 정신력의 하위요인인 투지, 긴장감 해소, 승부욕이 구조화 되는 것으로, 정신력이 스포츠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특성과 상황적 맥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현되는 인지적 강인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는 성향 등의 정의되고 있다. 이는 경륜 시합 중에서 몸싸움도 불사하고 적극적인 경기운영, 자신감, 집중력 등의 심리요인은 상황적 특성맥락이 아니라 경륜 경기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인식되는 것으로 승부욕과 투지가 발휘되면 경기의 특성 순간 아니라 경기 내내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은 경기력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라 제시하고 있으며, 김진선(2009)은 여자 유도선수를 대상으로 정신력과 경기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정신력 요인은 승부욕, 분투노력, 인내끈기, 불굴투지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한국형 정신력의 모든 하위요인은 경기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형 정신력의 하위요인으로 인내끈기와 분투노력은 경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김영미, 이화석, 한혜원(2009)은 대학운동선수의 승부근성 요인 중 승부욕은 학생들의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 운동선수들의 승부욕이 높을수록 경기력은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김영미, 한혜원(2013)은 대학운동선수의 승부근성과 자기관리, 운동몰입 및 경기력의 관계에서 승부근성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승부욕과 투혼은 인지된 운동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상성적에는 승부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부근성과 자기관리, 운동몰입 및 경기력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운동선수의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관리, 승부근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선수의 승부근성은 자기관리와 운동몰입,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승부근성이 경기력에 중요한 심리적 요인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추수진(2011)은 부근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의 지표이며, 경기력의 가장 좋은 예측 수단 중 하나로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몸에 베어 있을 때 생기는 정신적 태도로서, 이는 경기상황에서 상대선수를 이길 수 있다는 신념 혹은 경기를 잘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의 내적 느낌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학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 및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투혼, 자신감, 승부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자아성향과 과제성향이 운동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투혼과 승부욕이 운동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살펴보듯이 성취목표성향과 승부근성, 운동몰입은 경기력 향상을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이라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이 연구는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의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3년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단체 등록한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집락무선표집법(culster random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표본추출은 제40회 전국대학개인선수권대회, 제43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제48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제36회 한국대학연맹전국 태권도대회에 참가한 대학 여성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총 500명을 표집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결측치가 있는 63부의 자료는 제외한 총 437명의 최종 유효 사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빈도분석. 둘째,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셋째, 실제 변수들의 관계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상관관계 분석. 넷째, 변인들간의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수경력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차이를 분석결과 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상경력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차이를 분석결과, 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속에 따른 승부근성의 차이를 분석결과, 자신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수경력에 따른 승부근성의 차이를 분석결과,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승부욕, 투혼, 자신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상경력에 따른 승부근성의 차이 분석결과 승부욕, 투혼, 자신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수경력, 입상경력에 따른 경기력의 차이를 분석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의 하위변인인 투혼, 승부욕, 자신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은 경기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섯째,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승부욕, 자신감은 경기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 언

이 연구는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의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 및 경기력을 분석하였으며, 사후연구에서 품새 선수대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적 요인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양적연구인 설문지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연구자들의 내면적인 면을 연구하는데 한계성이 있으며, 후속되는 연구에서는 한국 태권도 선수들의 내면적인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한 심층적인 분석방법으로 질적 연구 방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경주(2013). 중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자기관리와 경기력의 관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오민(2008). 태권도 선수의 스포츠 자신감이 성취목표지향성 및 자기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원식, 이경명(1999). 태권도 현대사. 서울 : 보경사, pp. 77-78.

김경식(2005). 스포츠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무지개출판사.

김경수(2011). 씨름 선수의 자기관리가 자신감, 성취목표지향성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병준(1998). 스포츠심리학에서 비교문화 연구전략.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9권 2호, pp. 63-81.

김병현, 이한규, 엄한주(1997). 한국형 정신력 검사지 개발(1).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체육과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김병태(2011). 태권도 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 자신감 및 경쟁상태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성진(2006). 경륜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요인의 구조화 및 상대적 중요도 분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성은(2005). 여자 프로농구선수들의 성취목표지향성과 내적동기가 스포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연(2010). 태권도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에 따른 임파워먼트와 운동몰입 및 경기력의 인과관계.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승환(2009). 마라톤 선수들의 정신력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미,한혜원(2013). 대학운동선수의 승부근성과 자기관리, 운동몰입 및 경기력의 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27권 1호, pp.163-177.

김영미, 이화석, 한혜원(2010). 대학운동선수의 승부근성이 자기관리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포스트 발표). 한국체육학회.

김영인(2002). 한국 여성 태권도 발전과정에 관한 기초자료조사, 여성태권도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김원배(1999). 스포츠 자신감 질문지(SSCQ)의 타당성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10권, 제2호, pp. 107-122.

김원배(2001). 투기종목 선수의 정신력 개념구조 탐색 및 측정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원배(2002). 스포츠 정신력 개념 구조 탐색 및 측정도구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3(3), pp. 21-41.

김원배, 윤영길(2003). 한국형 스포츠 귀인 측정도구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1), pp. 27-49.

김의환, 이학래, 김정행, 김상철, 최종삼, 김기진(1991). 유도경기 훈련지도서. 한국체육과학원.

김희종(2007). 스포츠 컨디션의 심리학적 개념구조 및 타당성 검증.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용규, 김덕진(2010). 초등학교 축구선수의 성취목표지향성과 경기력 중요 심리요인의 관계. 한국초등체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 191-199.

김진선(2009). 여자 유도선수들의 정신력과 경기력의 관계.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희, 문현희(2009). 국내여자투어골프 선수의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관리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8권 제1호 pp. 133-141.

김주연(2012).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자기관리 전략과 성패

귀인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찬주(2006). 운동선수의 성격과 성취목표성향 및 경쟁불안이 성패귀인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창문, 배영훈, 한태준(2005). 중·고교 골프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경재상태불안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6권 제4호. pp. 707-715.
두산동아백과사전(2010). 승부근성, 두산백과. Encyber & Encyber. com
박성진(2007). 국가대표 사격선수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철우(2009). 고교야구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내적동기와 스포츠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진희(2010). 대학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스트레스 대처의 인과모형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40권, 제2호, pp. 875-885.
변영신(1993). 운동경쟁상황에서의 동기적 분위기가 성취목표지향 및 지각된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학위논문.
연세한국어사전(2000).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윤영길(2004). 축구 경기력 결정 심리요인의 위계적 중요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소연(2006). 고등학교 유도선수들의 정신력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숙(2010). 무용열정의 심리적 개념 구조.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왕성(2007). 고교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진로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낙철(2009). 지체장애선수의 정서, 열정, 생활만족, 시합전략.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관인(2005). 태권도 품새와 태극권 투로의 비교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진영(2009). 요트선수들의 정신력과 성취목표성향의 관계.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　진(1996). 운동선수들의 심리적 기술 검사지 개발. 한국체육학회지, 35(3). pp.107-124.

오정묵(2008). 음악줄넘기 운동이 중학생들의 성취목표성향 및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윤경(2008). 탁구 경기력의 심리요인 구조와 위계적 중요도.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종필(2012). 우종필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심기선(2009).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내적동기와 스포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정택, 김성훈, 박윤식(2009). 국내 정상급 선수를 위한 승부근성 검사지 개발. 한국사회체육학회, 36(2), pp. 755-772.

신동선(2010). 한국 여성 태권도경기의 변천과정.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지훈(2010). 태권도 선수의 성취목표지향성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지준(2009). SPSS/AMOS 통계분석방법. 파주: 21세기사.

성창훈(1995). 성취목표 성향과 목표설정 유형이 동기적 행동 및 운동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　권(2010). 한국 태권도 경기사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재근(2008). 고교 육상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귀인유형이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9-20.

전병관, 추수진(2011). 대학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 및 운동몰입

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0(5), pp. 469-481.

정국현(2003).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에 관한 질적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두리(2011). 고교 태권도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현도(2005). 태권도 경기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6권, 제4호 pp. 865-876

정청희, 김병준(1999). 스포츠심리학의 이해. 도서출판 금강.

정청희, 이춘만, 김원배(1998). 한국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정신력 검사지 개발, 국제 스포츠 과학학회지. pp. 365-376.

조긍호(1997). 한국심리학회 1997년도 추계 심포지움/동양 심리학의 모색. 한국심리학회

조현철, 김종식(2011). 대학 유도선수 성별과 운동경력에 따른 경쟁상태 불안이 경기력의 관계분석. 대한무도학회지, 13(3). pp. 151-159.

최지훈(2013). 중,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의 운동재미요인과 운동몰입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추수진(2011). 대학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 및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영갑(2007). 득점분석을 통한 태권도 경기의 발전방향.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

허용남(2008).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에 따른 정신력 요인에 관한 비교분석.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정훈(2002). 운동선수 자기관리 측정도구의 구조적 타당화와 인과모형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정훈(2004). 스포츠 귀인측정: 방법론적 쟁점과 미래연구 방향.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5권, 제5호, pp.589-560.

허 준(2013).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구조방정식 모형-고급편. 서울: 한나래출판사.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1), pp.161-177.

홍준희(2001). 스포츠 장면에서 목표지향적 정서모델의 타당성 검증. 한국 스포츠심리학회지, 13(2). pp. 203-137.

스포츠 심리학 핸드북(2005). 한국스포츠 심리학회편. pp. 170-178.

Alderman, R, B.(1974). Psychology behavior in sport. Philadelphia: Saunders.

Ames, C.(1984). Achievement attributions and self instruction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goal structur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pp. 478-487.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Burton, D.(1993). Goal setting in sport. In R. N. Singer, M, Murphy, & L. K. Tennant(Eds.), Handbook on research in sport psychology (pp. 467-481). NY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Carron, A. V.(1980). Hausenblas, H. & Estabrooks, P. A.

Cratty, B. J.(1967). Psychology in contemporary sport: Guidelines for coaches and athlet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Duda, J. L. & Chi, I.(1989). The effect of task-ego involving conditions on perceived competence and causal attributions in basketball. The A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Applied Sport Psychology. Seattle, WA : University of Washington.

Duda, J. L. & Nicholls, J. G.(1989). The task and ego orientation in port questionnaire: Psychometric Properties. Unpublished manuscript.

Duda, J. L. & Nicholls, J. G.(1992). The 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 Psychometric Properties. Unpublished manuscript.

Duda, J. L., Chi, I., & Newton, M. (1990).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TEOSQ.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orth American Society for the Psychology of Sport & Physical Activity, University of Houston, TX.

Duda(1989). Goal perspectives, participation and persistence in s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0, pp. 42-56.

Dweck, C. S.(1986). Motivational processes affecting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41(10), 1040-1048. Edwardsville, IL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Maehr, M. L., & Nicholls. J. G., (1980). Culture and achievement Cross-cultural Psychology (pp. 341-363). NY : Academic Press.

Maehr(1984). Meaning and motivation, In R. Ames & C. Ames(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Student motivation, 1, New York: Academic press. pp. 115-144.

Roberts, G. C.(1984). Motivation in sport & exercise: Conceptual constraints & conceptual convergence. In G. C. Roberts (Ed). Champaign, IL: Human Kinetics, pp. 3-30.

Feltz, D. L.,(1982). Path analysis of the causal in Bandura's theory of self-efficacy and anxiety-based model of avoidanc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774-781.

Gerbing, D. W. & Anderson, J. C. (1988). An Updated Paradigm for Scale Development Incorporating Unidimensionality and Its

Assess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5*(2), 186-192.

Elliot, A. J., & Dweck, C. S.(1988). Goal; An approach to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5-12

Nicholls, J. G.(1984). Achievement motivation: Conception of ability, subjective experience, task choice, and performance. Psychological Review, 91, 328-346.

Nicholls, J. G.(1989). The competitive ethos and democratic education.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Nunnally, J. C., & Ber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Norton, K. I., & Olds T. S,(2000). Anthro-pomtrica. Sydney: UNSW Press.

Loehr, J. E.(1982). Athletic excellence: Mental toughness training for sports forum publishing company.

Locke, E. A., Shaw, K. N., Sarri, L. M., & Latham, G. P.(1991). Goal setting and task performance. Psychological Bulletin, 90, pp. 125-152. Academic press, pp. 219-266.

Roberts, G. C.(1984). Motivation in sport & exercise: Conceptual constraints & conceptual onvergence. In G. C. Roberts (Ed). Champaign, IL: Human Kinetics, pp. 3-30.

Fiedler, F. E. & Billo, M. W. (1973). Correlates of performance in community collage. Technical Report. University of Washington.

Vealey, R. S.(1986). Conceptualization of sport-confidence and competitive orientatio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Psychology, 8, pp. 221-246.

Weinberg, R. S., & Gould, D.(1995). Foundations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gy. Champaign, Ⅱ: Human Kinetice.

Weinberg, R. S.,(1992). Goal setting and mptor performance; review and tectnique. In G. C. Roberts(Ed). Motiuation in sporet and exercise (pp. 117-197). IL: Human Kinetics.

Weinberg, R. S. (1996). Goal setting in sport and exercise: Research to practice. In J. L. Van Raalte and B. W. Brewer(Ed.), Exploring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pp. 3-2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부 록 >

설 문 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의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학위논문 준비를 위한 연구과정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써 귀하의 답변은 소중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각 문항에는 정답이나 오답이 없으며 응답하신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의 기초가 되오니 한 문항이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연구자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과 김 아 람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어보신 후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① 고등부< > ② 대학부< > ③ 일반부 < >
선수경력	① 5년 미만< > ② 5년이상 – 10년미만< > ③ 11년이상– 15년미만< > ④ 15년이상< >
입상경력	① 전국대회 입상 < > ② 전국대회 미입상 < > ③ 시·도·군 대회 입상< > ④ 시·도·군 대회 미입상 < >

1. 다음은 귀하의 성취목표지향성(TEOSQ)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평소 목표설정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모두 발휘하였을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이 연습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동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들이 나 만큼 못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재미있는 무엇인가를 배울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선수들은 실수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정말로 열심히 연습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 혼자서 역할을 거의 다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좀 더 많이 연습을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일등을 하거나 제일 잘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만이 배운 운동 기술을 완벽히 할 수 있을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배운 전술을 정확히 수행한다고 느낄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승부근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표 선발전에 상대선수를 이기려고 온힘을 다하여 시합을 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모든 경기에서 상대선수를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시합을 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결승전에 상대선수를 이기려고 하는 강인한 의욕으로 시합을 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시합에 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중요한 대회일수록 승부욕이 강인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모든 대회에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합에 임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힘들어도 끝까지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상대선수 보다 실력이 부족해도 끝까지 최선을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극한 상황에서도 참고 최선을 다하여 시합에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힘든 상황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무엇이라도 물고 늘어져서 끝장을 본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힘이 들면 끝까지 참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참고 끝까지 덤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결승전에서 부상을 입으면서도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경기상황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시합에서 정신적, 심리적 압박(부담)을 이겨낼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상대선수가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상대선수에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최선에 다하여 훈련에 임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시합을 두려워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어떤 상대 선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귀하의 경기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어보신 후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경기력은 상승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정상급의 경기력을 가졌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경기력은 만족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최상급의 선수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항상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